

전북대, 지역 기업 수출 길 열다

창업지원단, 전북 13개 기업과 '글로벌 시장개척단' 활동 4년째 글로벌 시장개척단 활동 통해 수출 판로 개척 올해 태국·베트남 찾아 23만불 규모 MOU 체결 성과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는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이 올해도 베트남과 태국 등을 찾아 다양한 지역 기업의 수출 길을 여는 성과를 올렸다.

창업지원단은 지난 6월 25일부터 6일 동안 베트남 호치민과 태국 방콕에서 전북지역 13개 기업과 함께 '글로벌 시장개척단' 활동을 통해 23만불 규모의 MOU 체결 성과를 올렸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글로벌 시장개척단은 전북대가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2015년부터 4년째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연구마을지원사업 수혜기업의 글로벌 시장개척 진출을 위해 2016년부터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시장개척단은 우리 기업들이 다양한 나라의 바이어들과 매칭될 수 있도록 기존 베트남 바이어를 포함하

여 태국 바이어들을 추가 섭외해 참여기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현지 시장조사를 통한 기업 아이템 검증을 진행하며 바이어 특성에 맞도록 비즈니스 상담을 추진했다.

특히 전북대 창업지원단 시장개척단 참여기업 중 (주)더맘마가 씨엔티테크(베트남법인)와 8만 불의 투자유치 계약을 체결해 고무적인 성과를 올렸고, 이를 비롯한 다른 참여기업들도 MOU 체결과 현장판매를 진행해 기업과 현지 바이어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씨엔티테크 유상만 베트남법인장은 "이번 시장개척단을 통해 한국의 우수한 O2O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주)더맘마가 한국의 지역 대형마트 인프라를 통합해 급성장하는 모습을 높이 평가해 이번 투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북대 권대규 창업지원단장은 "실제 투자까지 이루어진 이번 사례를

발판으로 지역의 좋은 기업을 발굴하고, 베트남과 태국뿐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 진출 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만들어 지역 우수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순일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장은 "연구마을 입주기업이 시장 잠재력이 큰 베트남 등의 동남아시아 시장진출을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이 올해도 베트남과 태국 등을 찾아 다양한 지역 기업의 수출 길을 여는 성과를 올렸다.

전주대, 성장하는 자녀 위한 학부모 특강 열어

도내 중·고교 학부모 180여명 대상 진로·진학 아카데미

전주대는 지난 7일 전주 르윈호텔에서 도내 중·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 182명을 대상으로 진로진학 아카데미를 진행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학부모에게 자녀의 올바른 양육법과 진학 및 적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변화하는 입시 환경에서 올바른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홍정기 센터장(대교협 대입상담센터)과 김중우 진로진학부장(양재고), 조벽 교수(숙명여대)가 초청되어 입학상담 및 성적에 대한 이해, 자녀의 진로를 위한 부모의 역할, 자녀교육: 정서적 금수저로 키우는 법을 각각 교육했다.

전주대는 2017년부터 학부모 대상 진로진학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교육은 교육 만족도가 4.8점(5

점 만점)이 넘는 만큼 호응이 좋았다. 교육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안도감이 웃기도 하고, 자녀를 고생시켰다는 마음에 후회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유 있게 지켜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녀를 존중하고 지지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겠다"라고 교육의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전주대는 11년 연속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된 바 있으며 중·고교 학부모 대상 진로진학 박람회, 진로특강, 진로진학코치 연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부모의 대입전형 부담감을 덜고 고교교육을 내실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박영기 교수,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수상

농업용수 방류시 새만금 수질개선 모델링 연구 '호평'

전북대학교는 박영기 교수(공대 토목·환경·자원에너지공학부)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수여하는 제28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하는가에 대한 시뮬레이션 및 수질 모델링에 대한 연구다. 논문에서 제시한 방류 조건에 따라 새만금의 수질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호평을 받았다.

박 교수는 "현재 새만금호에 대하여 방류량 증가에 의한 수질개선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전무하며, 이 연구를 통하여 제수문운영에 따른 호 내 수질 변화 및 영향범위를 제시하여 효과적인 수질관리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상은 대한민국 전 학문분야에 걸친 우수한 학회들에서 발간하는 저널 중 가장 뛰어난 논문의 추천을 받아 주는 것으로, 지난 1990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국내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이룬 석학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도교육청, 집중호우 피해학교 복구 신속 지원

전북도교육청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5개 학교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 신속 복구가 필요한 이리여고에 재난 예비비 8,15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지난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리여고는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2일 오전 8시에 북

동쪽 토사 축대(경사면)가 30m 가량 붕괴되고, 벽돌 담장 일부가 파손됐다.

이에 도교육청과 익산교육지원청, 학교측은 지난 3일 오전, 우천시 빗물 유입 방지를 위한 비닐 천막지로 응급조치를 취했으며, 2차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긴급히 재난 예비비를 투입해 신속한 복구공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집중호우로 도내에서는 이리여고를 비롯해 5개 학교가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훈 기자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농식품융합대학 반려동물산업학과가 '유망학과 HOT100'에 선정됐다.

원광대 반려동물산업학과, '유망학과 HOT 100'

점수나 서열이 아닌 적성·미래비전 중심으로 선정 물행동상담사·애견미용사 등 다양한 자격 취득 가능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농식품융합대학 반려동물산업학과가 '유망학과 HOT100'에 선정됐다. 원광대에 따르면 '유망학과 HOT 100'은 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가 전국 대학의 학과들을 조사해, 미래 비전을 평가해 선정한 유망학과로서 기존의 점수나 서열이 아니라 적성이나 미래 비전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원광대 반려동물산업학과는 6조 원에 이르는 반려동물 산업 시장을 이끌어갈 반려동물 전문가 육성을 목표로 2018년 신설돼 2019 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한다. 특히 신설학과지만, 재학 중에 동물간호복지사, 동물매개심리상담사, 동물행동상담사, 반려동물

관리사, 애견미용사, 실험동물기술원 등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 졸업 후 반려동물 산업 분야 취업 및 창업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생명환경학부 김육진 교수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4차 산업 유망 직종으로 동물매개치료를 담당하는 '동물매개심리상담사'와 반려동물을 돌보는 '도그워커' 등을 선정할 정도로 반려동물 산업 분야는 미래 전망이 밝은 분야"라며, "학부 4년제 반려동물산업학과가 신설됨에 따라 향후 관련 분야 전문가 양성에 큰 도움을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도교육청, 돌봄형 마을학교 운영

11월까지 운영기관 공모... 운영비·인건비 등 지원 방학 중 소외계층·맞벌이 가정 학생 돌봄 서비스

전북도교육청은 지역사회와 함께 여름방학 중 돌봄형 마을학교를 운영키로 하고, 이를 운영할 돌봄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돌봄형 마을학교는 돌봄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여름방학 기간 20일 정도 운영된다.

아파트 단지 내 작은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종교시설 등 안정적인 돌봄공간이 있는 곳을 선정할 방침인데, 도교육청에서 신청 기관을 직접 방문해 확인하게 된다.

선정된 기관에는 운영비, 간식비, 지원봉사 인건비, 프로그램 감사비 등이 지원되는데, 심사 후 학생 숫자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돌봄형 마을학교 공모 기간은 11일까지이며, 18~20일 현장 실사 후 운영기관을 최종 선정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방학 중 돌봄이 필요한 소외계층과 맞벌이 가정 자녀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돌봄형 마을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